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

- 〈댄싱 9〉을 중심으로 -

배수을*

I. 서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	Abstract

I. 서론

무용 대중화의 문제는 국내 무용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화두로, 그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어느 정도의 일맥(一脈)을 형성하고 있다. 문애령(1992)은 “어느 사회나 특정계층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현상이 있고 계층예술, 엘리트예술, 대중예술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용의 대중화의 의미가 무용이 대중예술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와는 관계없는,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술로서 자리 잡기 위한 대중화로 이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¹⁾고 논고하였다. 한혜리(2001)는 “예술의 대중화 내지는 무용의 대중화는 모두가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무용의 개발과는 달리 이러한 생각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무용공연에 친숙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 대화의 주제나 방법론에서 오락무용과 타협하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생각과 토론의 장을 자주 그리고 대

* 경희대 · 숙명여대 강사, eul0715@hanmail.net

1) 문애령(1992), 무용의 대중화, 『문화예술』 151, p.20.

중들 가까이에 마련하자는 것”²⁾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수진, 김현숙(2010)은 “한국의 무용 대중화는 무용이 더 이상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요소가 아니며, 저속함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³⁾고 피력하였다. 이상의 관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직시하는 ‘무용 대중화’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대중으로부터 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무용에 보다 친숙하도록 만들어어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와 궤(軌)를 같이하여 볼 때, 현대사회에서는 무용과 대중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매개체로 TV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방송계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디션은 ‘경청하다’는 뜻의 라틴어 ‘아우디레(audire)’에서 유래했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 배우와 가수를 선발하던 방법인 오디션이 이전 재능 있는 일반인을 뽑는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⁴⁾ 그 중 국내 최초의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Mnet의 <댄싱 9>은 <슈퍼스타 K>의 시즌 1과 시즌 2를 제작하여 국내 오디션 열풍을 일으켰던 제작진이 2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방영 초반부터 언론과 시청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댄싱 9>은 매주 토요일 밤을 ‘춤’으로 물들이며 수많은 대중을 무용의 세계로 끌어들이었다. <댄싱 9>에 출연했던 무용수들의 차기작으로 알려진 작품들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 ‘춤’을 ‘낫설다’라고 인식했던 대중들의 경계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 그동안 무용 장르에 대한 관객들의 차가운 반응을 알고 있던 이들이라면 기적 같은 변화라 할 만하다.”⁵⁾

현재 <댄싱 9>은 시즌 1에 대한 성공적 평가로 인해 시즌 2의 제작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댄싱 9>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2) 한혜리(2001), 삶의 同志로서의 무용, 『문화예술』 258, p.66.

3) 정수진, 김현숙(2010), 한국의 무용대중화 실천방향: Bourdieu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춤연구』 11, p.104.

4) 이지은(2011), 오디션, 그 치명적 중독, 『주간동아』 781, p.21.

5) 정지혜(2013년 10월 15일), ‘댄싱 9’ 열풍…‘서울무용제’가 잇는다.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17>, 2013. 10. 15>.

이끌어냈다는 점⁶⁾으로 평가받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대중이 외면하는 예술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면이 어떤 의미의 외면이나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반대로 어떤 의미의 호응이었느냐 하는 것 역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⁷⁾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댄싱 9> 프로그램이 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중매체는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어떤 ‘상(像)’이나 ‘이념(理念)’을 형성해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무용을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 역시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에 의한 ‘무용의 상’이나 ‘무용에 관한 이념’을 형성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댄싱 9> 시즌 1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중의 능동적 참여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시청자 의견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간 시청자 의견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주요 경향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게시판 참여 유형과 제작진의 수용 형태에 관한 연구에 주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댄싱 9>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분석하여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프로그램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은 무용의 대중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로서 유지 또는 발전적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역기능은 무용의 대중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로서 개선 또는 신중한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댄싱 9>에 대한 시청자 의견 분석을 통해 무용의 대중화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시즌 2를 앞

-
- 6) 김주현(2013년 10월 14일, 춤의 대중화 <댄싱 9> 스타의 산실은?. 『베리타스 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80>, 2013. 10. 14>.
7) 한혜리(2001), 삶의 同志로서의 무용, 『문화예술』 258, p.63.

두고 있는 <댄싱 9>의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있어 앞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제보자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 집단의 의견 분석을 통해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제보자는 <댄싱 9> 시청자 중에서도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할 정도의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청자들이다. 검색 포털 Daum에서 TV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프로그램 정보의 하단에 ‘평점&150자평’이라는 코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청자들은 0~10점까지의 평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150자 이내의 평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150자평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과 질책 및 대안에 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댄싱 9>의 ‘평점&150자평’에 참여한 399명의 시청자가 본 연구의 제보자가 된다. 연구 제보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자료는 검색 포털 Daum의 TV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검색 포털 Daum에서 운영하고 있는 ‘TV프로그램 평점&150자

<표 1> 연구 제보자의 특성

성별 \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남자	0	31	42	20	93
여자	11	40	137	118	306
합계	11	71	179	138	399

평' 게시판에 등록된 <댄싱 9>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수집·분류·분석하였다. <댄싱 9>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공지/시청자의견'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제작진과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공식 홈페이지의 속성인 만큼 제작진의 공지사항 게시를 비롯하여 참가자들의 지원신청과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대한 문의, 그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에도 시청 시 건의사항 및 불만 사항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들도 게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Daum의 'TV프로그램 평점&150자평' 게시판의 경우 시청자들이 0~10점까지의 평점을 부여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작진에게 요청하는 바가 주된 속성인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시청자의견' 게시판보다는,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인 Daum의 'TV프로그램 평점&150자평' 게시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댄싱 9>은 총 12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2013년 7월 20일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10월 5일에 종영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기간은 <댄싱 9>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던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등록된 게시글은 총 377건이었으며, 게시글 아래에 첨부되는 댓글은 84건이었다. 수집된 시청자 의견 총 461건 중에서 프로그램 분석과 무관한 내용, 비평이 아닌 무의미한 비방의 내용,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게시된 내용, 광고성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80건을 제외한 총 381건의 자료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일자 순으로 모두 한컴오피스 한글 2010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원자료화하였다. 댓글의 경우 게시글을 클릭하여 새로운 화면으로 이동해야만 해당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2단계는 개방코딩 단계로 원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내용이 함축하고 있

는 관련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개념으로 분리시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총 474건의 하위범주(순기능 331건, 역기능 143건)가 생성되었다(하위범주). 3단계는 축코딩 단계로 분산되어 있는 개념들을 다시 유사한 속성으로 범주화하였다(상위범주). 4단계인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각 개념들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 핵심범주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최상위범주). 시청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산출된 백분율 값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기재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료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점과 판단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특히 수집된 자료들을 한글 프로그램에 원자료화시킨 후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무용학 박사학위 취득자 2인과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반영하였다.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검토와 토의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Ⅲ.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 집단의 의견 분석을 통해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의 순기능으로는 여섯 가지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중 심사위원으로서의 능동적 참여가 101건(30.5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표 2〉 〈댄싱 9〉 프로그램의 순기능에 대한 범주화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상위범주	
개념	빈도(%)	개념	빈도(%)	개념	빈도(%)
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7(2.11)	춤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전환됨	11(3.32)	춤에 대한 관심 유발과 몰입	74(22.35)
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4(1.20)				
흥미로움	27(8.15)	춤에 매료됨	63(19.03)		
대단함	13(3.92)				
새로움	8(2.41)				
매력적임	6(1.81)				
시간 가는 줄 모름	5(1.51)				
멋있음	2(.60)				
설렘	1(.30)				
아름다움	1(.30)				
열정을 쏟는 모습	8(2.41)	춤을 향한 열정에 감동	15(4.53)		
간절함을 담은 모습	3(.90)				
노력하는 모습	2(.60)				
춤을 즐기는 모습	2(.60)	춤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 탁월한 기량에 감동	48(14.50)		
건강이 좋지 않은 무용수	6(1.81)				
부상을 입은 무용수	3(.90)				
나이 많은 무용수	2(.60)				
가정형편이 어려운 무용수	1(.30)				
수준급 무용 실력	11(3.32)	탁월한 기량에 감동	21(6.34)		
섬세한 감정표현	8(2.41)				
예술적인 신체	2(.60)				
안무력에 대한 평가	22(6.64)	안무력과 연출력에 대한 평가	43(12.99)	대중 심사위원으로서의 능동적 참여	101(30.51)
연출력에 대한 평가	21(6.34)				
참가자들의 당락에 대한 평가	42(12.68)	참가자들의 당락과 우승팀 선정에 대한 평가	58(17.52)		
우승팀 선정에 대한 평가	16(4.83)				
좋아하는 무용수만 눈에 들어옴	40(12.08)				
좋아하는 무용수가 속해있는 팀을 응원함	5(1.51)	특정 무용수에 대한 지지	49(14.80)	무용계 스타의 발굴과 대중의 열광	71(21.45)
좋아하는 무용수가 무대에서 부각되길 바램	4(1.20)				

〈표 2〉 계속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상위범주	
개념	빈도(%)	개념	빈도(%)	개념	빈도(%)
마스터가 멋있게 느껴짐	9(2.71)	특정 마스터에 대한 지지	22(6.64)	무용계 스타의 발굴과 대중의 열광	71(21.45)
마스터의 안무력에 감동받음	9(2.71)				
마스터의 춤 실력에 감동받음	4(1.20)				
춤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다양한 장르의 춤들이 흥미로움	3(.90)	여러 장르의 춤을 접하면서 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4(1.20)	다양한 춤 장르 시청	7(2.11)
음악 오디션에 시상했는데 다양한 장르의 춤을 보고 놀람	1(.30)				
평소 춤 감상을 좋아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볼 수 있어 좋음	2(.60)	기준에 좋아했던 춤 외에 다른 춤도 좋아하게 됨	3(.90)		
특정 장르의 춤만 좋아했었으나 다른 춤들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됨	1(.30)				
다음 방송이 기대됨	14(4.22)	춤에 대한 기대가 생김	17(5.13)		
다음 방송을 기다리기 힘들	3(.90)				
다시 봐도 재미있음	2(.60)	반복시청에도 싫증을 느끼지 않음	9(2.71)	다시 보고 싶은 춤	30(9.06)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싫증나지 않음	7(2.11)				
방청객이 되고 싶음	2(.60)	공연현장 관람 욕구가 생성됨	4(1.20)		
좋아하는 무용수의 공연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음	2(.60)				
전체	331(100.00)	전체	331(100.00)	전체	331(100.00)

춤에 대한 관심 유발과 몰입 74건(22.35%), 무용계 스타의 발굴과 대중의 열광 71건(21.45%), 춤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 탁월한 기량에 감동 48건(14.50%), 다시 보고 싶은 춤 30건(9.06%), 그리고 다양한 춤 장르 시청 7건(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춤에 대한 관심 유발과 몰입

“국내 최초 댄스 서바이벌 <댄싱 9>은 방송 2회 만에 평균 시청률 1.2%, 최고 1.7%를 기록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평균 시청률 3.7%까지 치솟았다.”⁸⁾ 평소 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청자들도 <댄싱 9> 프로그램을 통해 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점 춤에 매료되어갔다. 시청자들은 흥미롭다, 대단하다, 새롭다, 매력적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멋있다. 설렌다, 아름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처음 알게 된 춤으로 인해 ‘삶이 마비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시청자도 있었으며, 평소 춤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지만 <댄싱 9> 프로그램을 통해 춤이 매우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청자들도 많았다. 또한 음악으로부터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을 춤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대체로 자신도 모르게 흥이 난다거나,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춤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춤을 잘 알진 못하지만 놀랍네요..춤만으로 사람을 감동시킬수 있다는게... 방송기다리기가 넘 힘들어요 한다면한다 2013.08.18.

댄스의 ㄷ 도 모르는제가 삶이 마비될정도로 무아지경으로 반복해서 보는중입니다..넵 재밌어요. 그분의 소금 2013.08.29.

와^^ 너무 멋져요^^ 춤이란 관심조차 갖지 않았는데 이프로 보면서 춤이란 것이 이렇게 멋지구나! 처음생각했어요^^ 보면서 내몸도 들쭉~~ 들쭉~~ 울었다 웃었다 를 저도 모르게 ~~ ^^ 정말 다들 멋지세요~~ 옥합 2013.09.15.

음악으로 감동주는 오디션이 워낙 많아져서 몇분동안 몰입해서 눈물이 나고 했었는데 정말 마지막무대”가지마 가지마” 무대는 두렵다 멋졌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동안 순간몰입되고 슬펐답니다..앞으로도 계속 볼겁니다..댄싱9 화이팅~~~~ 강지미니 2013.08.11.

노래 부르는 오디션 프로만 계속 보다가 전문 댄서들이 겨루는 프로를 보고,

8) 강민정(2013년 7월 29일), ‘댄싱 9’, ‘댄스風’이 분다..최고시청률 1.7% 찍었다, 『이데일리』,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249686602879440&DCD=A10102>, 2013. 8. 10>.

춤에 대해 전혀 관심없는 저도 완전 홀딱 빠졌어요. 토요일 밤 11시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레드윙즈 응원하지만, 블루팀도 매력있어요. ^^ 다치지 말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seon-ju 2013.09.11.

나. 춤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 탁월한 기량에 감동

〈댄싱 9〉 시청자들은 참가자들로부터 세 가지 측면에서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춤을 향한 열정, 도전정신, 그리고 탁월한 기량에 의한 것이었다.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열정을 쏟는 모습, 간절함을 담은 모습, 노력하는 모습, 춤을 즐기는 모습 등에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무용수,⁹⁾ 부상을 입은 무용수,¹⁰⁾ 나이 많은 무용수,¹¹⁾ 가정형편이 어려운 무용수¹²⁾ 등 각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디션에 참가한 도전정신에 대한 감동

- 9) “우아한 한국무용으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김해선은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다. 춤을 추지 말라는 가족의 만류에도 이날 오디션에 나와 당당히 합격 메달을 받았다. 그의 합격 소식에 가족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김해선은 ‘춤을 추지 않고 오래 사느니 춤을 추면서 빨리 죽는게 낫다’며 춤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오미정(2013년 7월 27일). 누가 댄스만 있다고 했나, 스토리 가득 ‘댄싱 9’에 시청자 ‘몽클’, 『eNews24』.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10807>, 2013. 8. 25〉.
- 10) “레벨 8 ‘유닛대항전’에서는 각 팀에서 3명씩 유닛을 구성한 뒤 3대 3 댄스배틀을 벌였다. …(중략)… 하지만 무사히 무대가 끝나갈 무렵, 레드윙즈의 손병현이 잘못된 착지로 부상을 당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긴급사태가 발생했다. 당황하는 심사위원들과 안타까워하는 마스터들, 놀란 참가자들과 제작진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손병현은 결국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이런 가운데서도 탈락자와 합격자의 운명은 가려져야만 했다.” 전수미(2013년 8월 25일). [댄싱 9 동영상] 부상후흔, 끈끈한 우정 빛났다…경쟁 넘은 감동의 무대, 『eNews24』.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27763>, 2013. 9. 10〉.
- 11) “‘댄싱 9’의 MVP 하휘동은 34살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나이가 많아 출연 자체를 망설였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다.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그의 도전정신과 화려한 무대는 깊은 감동을 안겼다.” 조현주(2013년 11월 3일). ‘댄싱 9’ 갈라쇼, 말 없는 무대에 숨죽이고 환호했다, 『한국아이닷컴』. 〈<http://news.hankooki.com/lpage/entv/201311/h20131103142815133420.htm>, 2013. 11. 5〉.
- 12) “〈댄싱 9〉 ‘레드윙즈’ 소문정은 댄스스포츠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으로, 출연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효심으로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이미나(2013년 10월 25일). 김수로, ‘댄싱 9’ 소문정에게 장학금 준다… ‘희망 잃지 않길’,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19371, 2013. 10. 26〉.

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의 사연과 슬픔을 공유하고자 했고, 그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열렬히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웬지 모르게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듯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의 수준급 무용 실력, 섬세한 감정표현, 예술적인 신체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춤 실력을 수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적으로 춤추는 참가자들 보면서 몇번 소름 돋았어요. 짱이에요 dbdl 하이 2013.08.20.

이걸 1회부터 지금까지 본 시청자로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춤실력이 세계수준이라 의심치않네요. 나온 모든분들이 정말 프로로 수준또한 어마어마하네요. 볼때마다 그분들의 열정에 매번 감동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평점맨 2013.09.22.

김해선님의 한국무용을 계속 볼수가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마스터님께서 탈락시킨것지... 선이 아름답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김해선님 김윤경 2013.08.24.

하휘동님 추카추카~..그 나이에도 그렇게 멋있게 춤을 출수 있다는 것이 다른 무용수들에게도 모범과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추카추카 합니다~~ 향기 2013.10.07.

덴싱보는데 이선태라는사람보고 깜짝 놀랐다. 남성미와 섹시미가 공존하는 힘있는 현대무용수...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춤을추고있는 모습...최고였다..꼭 결승까지 갈수있길 기도하겠슴. 모던 2013.08.14.

다. 대중 심사위원으로서의 능동적 참여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TV에서 진행되는 서바이벌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5명 중 1명은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주간동아’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마크로밀 코리아’에 의뢰하여 전국 5대 도시 2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11년 3월 28~29일).

13) 이지은(2011), 오디션, 그 치명적 중독, 『주간동아』 781, p.24.

응답자의 57.4%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고 답한 가운데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0.4%가 '마치 (시청자가) 심사위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니까'라고 답하였다(신뢰 구간 95%, 표본 오차±4.4%). <댄싱 9> 시청자들은 크게 안무력과 연출력에 대한 평가 및 참가자들의 당락과 우승팀 선정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참신했던', '비보잉과 파소도블레의 조합도 정말 멋있고', '음악과 동작 무대장치 그 모든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등등 각자의 심사기준을 제기하며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경연 심사과정에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가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심사위원의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무용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진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청자들의 심사내용이 전문적이지는 않으나, 그들은 각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무대와 무용수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블루팀 단체안무 좋았어요. 레드도 좋았지만 블루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참신했던 것 같네요 블루팀의 밝고 힘있는 에너지가 보기 좋네요. 이제 2회밖에 안남았네요. 아쉽네요^^ 블루,레드 댄서분들 모두 다 멋지고... 화이팅입니다. 음운주 2013.09.23.

레드팀 단체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비보잉과 파소도블레의 조합도 정말 멋있고..하휘동 핫팅! 파랑새 2013.09.25.

블루마지막 무대 보는데 눈물이 왈칵... 박지은마스터님 넘멋져요~^^음악과 동작무대장치그모든것하나빠지지 않는100점 무대정말 한선천,김명규,홍성식님그대들은 진정한댄싱킹들입니다. 솔비 2013.09.22.

제일 잘하는거 같은 사람은 이선태고 제일 호감가는 사람은 김명규..전체적으로 봤을땐 레드윙즈가 우승할듯 레드는 여자 댄서도 이루다, 소문정이 참 잘추더라~ 시즌2가 기대됨^^ 구리c 2013.09.30.

오늘 블루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부디 블루가 우승을 !!!! 핫팅 !!! 덜킨도넛 2013.09.22.

라. 무용계 스타의 발굴과 대중의 열광

“〈댄싱 위드 더 스타〉가 댄스스포츠 대중화의 물꼬를 터뜨리긴 했지만 종목이 한정되어 있었고 사실 스타가 스타가 된 거지, 현직 댄서가 스타가 된 건 아니다. 하지만 〈댄싱 9〉은 모든 무용 장르의 대중화에 대한 물꼬를 튼 동시에 댄서가 스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느 한 종목의 일이 아닌 만큼 출판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할 일이다.”¹⁴⁾ 이는 〈댄싱 9〉 박지우 마스터(master)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청자들은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지지하는 무용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댓글이 연속적으로 등록되면서 스타 무용수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무용수만 눈에 들어온다든지, 팀의 분위기나 팀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무용수들에게는 호감이 없으나 특별히 좋아하는 무용수 한 명 때문에 그 팀을 응원한다든지, 좋아하는 무용수가 단체무대에서나 상대 무용수에 비해 부각되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 특정한 몇몇 무용수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댄싱 9〉의 4차 생방송은 각 팀의 마스터들이 선곡부터 안무 구성까지 직접 연출하는 방식의 ‘마스터 매치’로 진행되었으며, 5차 생방송에서는 마스터의 스페셜 무대가 선보여졌다. 프로그램 방영 후 시청자들은 특정 마스터가 멋있게 느껴진다, 마스터의 안무력과 춤 실력에 감동 받았다는 등 그들에게 열광하는 반응을 보였다.

제논엔 발레니노 김명규 밖에 안보여용.ㅠㅠ 요즘 완전빠졌네요. 블루팀에 김명규의 리더쉽이 많이 보이는 무대들 정말 명구없음 안된당.. 정말 격하게 아끼고픈 명구~~ 블루팀에 핫팅~~ 워니 2013.09.25.

처음에 하휘동, 이루다씨만 눈에 들어왔는데 요샌 이선태씨가 넘 좋아요~ 이번주도 기대할게요~~^^ 76-83=♡ 2013.09.30.

폭풍 흡입력으로 사람을 들었다 났다 하는 이선태 씨!!! 왜 자꾸 서포터만 하

14) 위근우(2013년 9월 2일), [매거진 ize] 박지우 · 이용우 “〈댄싱 9〉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한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0209463659711&outlink=1>, 2013. 9. 16>.

는지...이제 시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 기량 언제 발산하시려고...제발 솔로 무대 한번만 보여 주세요~~ belnica 2013.09.29.

박지은 마스터님! 무대 폭풍 감동이었습니다! 아 최고의 댄서들이 최고의 안무가를 만났을때 사단이 일어난다는걸 확 깨달았어요. 순자 2013.09.23.

이용우 마스터님 대단합니다. 단체전 보고 놀랐어요... 다시 응원합니다. 블루승!!! 아무리봐도 블루가 잘했어용 ~~신준2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딸기가좋아 2013.09.23.

마. 다양한 춤 장르 시청

〈댄싱 9〉 제작진은 프로그램 기획의도에서부터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한국무용, 스트리트댄스, K-pop댄스 등 장르를 불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백조의 호수〉부터 〈강남스타일〉까지...’가 바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모토(motto)였다. “현대무용을 하는 이선태가 특유의 부드러운 동작 속에 강인한 면을 섞어 강은 양면의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마스터들을 매료시켰다면, 댄스스포츠 선수로 유명한 배지호는 골반 돌리기와 현란한 스텝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끈다. 고전무용을 하는 김해선이 우리 춤이 가진 우아하고 절제된 선을 선보인다면, 크럼프를 추는 음문석은 근육질의 몸에서 나오는 힘을 춤에 맞춰 한껏 느끼게 만들어주었다. 〈댄싱 9〉의 무대가 놀라운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자리한 여러 장르의 춤들을 재발견시켜준다는 점이다.”¹⁵⁾ 시청자들은 〈댄싱 9〉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접하게 되면서 춤에 대해 잘 모르지만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무분별하게 복제되듯이 양산되어 있는 음악 서바이벌 오디션들의 식상함을 떨쳐내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에 좋아하던 춤 외에 다른 춤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댄싱 9〉 프로그램은 춤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을 비롯하여 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청자들에게도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을 포괄하는 차

15) 정덕현(2013년 8월 3일), ‘댄싱 9’, ‘슈스케’와 비교 거부하는 특별한 매력. 『엔터미디어』.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2633, 2013. 9. 1).>

원에서 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춤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어 좋아요 색다른 매력과 감동도 느껴지네요~ 눈물이 흘러서 2013.08.19.

음악 오디션에 너무 식상했는데,, 정말 다양한 장르의 춤을 접하게 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특히 현대무용, 스포츠댄스, 발레 등등,, 당락을 떠나 참가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신주류창출 2013.08.15.

K Pop, 스트리트 댄스, 스포츠 댄스, 현대무용, 장르에 따라서 추는춤이 너무 멋졌어요 !! 특히나 Maksim Mrvica 의 Grieg's Piano Concerto In A Minor 연주에 맞춰서 추는 현대무용이 얼마나 멋지던지, 넋을 놓고 봤습니다 ! Diamond 2013.08.18.

요새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입니다. 춤추는거 보는걸 좋아하는데 여러 댄서분들의 다양한 춤들을 볼수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댄서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곰지 2013.09.23.

말그대로 승패 떠나서 다양한 멋진 춤들을 볼수있어 아주 좋았어요 특히 기존 비보이만 좋아했던 저로써 다양한 무용에도 흠뻑 빠졌네요 다들 참 멋진 듯!! 영보 2013.10.06.

바. 다시 보고 싶은 춤

우승팀이 펼치는 무대인 ‘〈댄싱 9〉 갈라쇼’는 인터넷 예매를 시작한지 10여 분만에 1회 공연 전석이 매진됨에 따라 춤 공연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댄싱 9〉 제작진 측은 ‘티켓을 구매하지 못해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팬들이 많았다’면서 ‘〈댄싱 9〉 참가자들과 마스터들이 급히 모여 앵콜 공연에 대한 의논을 했고, 1회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¹⁶⁾ 〈댄싱 9〉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시즌 2가 기다려진다는 의견, 다음 방영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의견, 하루빨리 생방송을 보고 싶다는 의견 등으로 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시청하여도 춤에 대해 싫증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공연

16) 김폴잎(2013년 10월 23일), ‘댄싱 9’ 갈라쇼, 앵콜 공연 1회 추가...무용계도 ‘놀랐다’. 『TV리포트』.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411930>, 2013. 10. 30>.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관람하고 싶은 욕구가 생성되기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시청자들이 <댄싱 9> 재시청 의사, 현장에서의 무용공연 관람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은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블루는 재미지고 레드는 감동이고 ^^ 완전짱이네. 벌써부터 댄싱 9 시즌 2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떨까나.. 보통 시즌 1은 멋모르고 나오지만 시즌 2는 정말 숨은 실력자들 연습해서 몰려 나올듯 한데 ^^ 우히히 흥해라. 지지지지 2013.08.26.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 너무 신선했습니다..이런 수준높은 공연을 안방에서 접할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춤이란 것도 대중가요만큼이나 반복해서 늘 보고싶고 접하고 싶다는걸 처음 느꼈습니다..댄싱 9 끝나면 삶의 낙이 하나 사라진것 같을 듯..여러분 덕분에 춤이란 문화에 눈을 뜨게 되고 관심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최고! 태백산 2013.09.30.

하휘둥,김명규,남진현,이루다~~ 화팅!!!!!! 요즘 돌려보기만 수십..수백번~~하는 프로임~~생방 빨리보고시퍼..... tosuns 2013.09.05.

계속 보기 있었습니다. 지난 3일자 방송 정말 잘 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꼭 방청객이 되고 싶다는 느낌이 솟구치네요^^.. happyvirus 2013.08.08.

김명규무대 너무 감동적이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댄서가 있다는게 자랑스러운 순간.. 블루팀 공연 꼭 보고싶고 김명규군 공연도 많이 해주길 다 찾아다니면서 볼 생각 gothrough 2013.09.15.

2.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기능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의 역기능으로는 네 가지 핵심변수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가 101건(70.6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예술적 가능성 저해 21건(14.68%), 과도한 경쟁심리 조장 15건(10.48%), 그리고 춤 장르 내에서의 불균형 6건(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댄싱 9〉 프로그램의 역기능에 대한 범주화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상위범주	
개념	빈도(%)	개념	빈도(%)	개념	빈도(%)
승부 위주의 분위기	6(4.19)	과도한 경쟁을 부추김	8(5.59)	과도한 경쟁심리 조장	15(10.48)
예술이 스포츠로 전락됨	2(1.39)				
탈락자 선정 방식이 잔인하게 느껴짐	4(2.79)	탈락자 선정 방식에 대한 반감	7(4.89)		
각 팀의 9명 중에서는 탈락자가 없기를 바랍	3(2.09)				
심사위원이 참가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음	18(12.58)	심사위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	42(29.37)		
심사위원이 참가자들을 평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음	12(8.39)				
심사평의 객관성이 부족함	8(5.59)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101(70.62)
심사평의 전문성이 부족함	4(2.79)				
사전 가산점 9점 제도의 개선 요구	37(25.87)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	59(41.25)		
MVP 선정 방식의 개선 요구	11(7.69)				
심사위원 점수 공개 요구	9(6.29)				
심사위원 점수 공개 반대	2(1.39)				
무리한 경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후사당하는 것 같음	13(9.09)	무대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	13(9.09)	참가자들의 예술적 가능성 저해	21(14.68)
팀 대결로 인해 개인별 기량이 저평가됨	4(2.79)	참가자들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8(5.59)		
믹스매치 유닛 대결로 인해 작품의 질이 낮아짐	4(2.79)			예술무용의 경우 현대무용에만 편중됨	6(4.19)
한국무용 마스터의 부재	4(2.79)				
클래식발레 마스터의 부재	2(1.39)	전체	143(100.00)	전체	143(100.00)
전체	143(100.00)				

가. 과도한 경쟁심리 조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조적 특징은 서바이벌 형식이다.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미션과 매주 탈락자가 있다는 것은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긴장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¹⁷⁾ <댄싱 9>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과도한 경쟁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팀 대결구도로 진행하여 탈락자 없이 우승팀을 가려내고 그 우승팀에서 MVP만 선정해도 충분하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무용은 특히 단체무대에서의 팀워크나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댄싱 9> 프로그램의 탈락자 선정 방식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녹화방송도 아닌 생방송 무대에서 탈락후보로 호명된 세 명의 무용수들이 자신이 탈락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마지막 춤을 추게 되는 방식이다. 실제 방송 당시에도 참가자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그 순간을 극복하고 탈락자 경쟁을 위해 춤을 추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시청자들은 너무 잔인하다, 비참하다, 민망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탈락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춤을 통해 진정성 있는 경쟁과 즐거운 경쟁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씩 탈락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춤추던 동료가 하나씩 사라지는 분위기에서 춤을 즐기며 출수 있을지... 긴장감을 주기위해 그런 룰을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승부위주 분위기로 가니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즐거운 경쟁의 모습을 볼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alma 2013.09.15.

진영간 배틀이라는걸 넘 강조하니 축제여야 할 방송에서 상대편 네버엔딩 디스팬들만 난무하는거 아니요. ... (중략) ... 이 좋은 댄서 자원들을 가지고 제작진이 너무 기획의도를 못살리고 있음. 돈데크만 2013.09.08.

이민우 마스터 말처럼 탈락자 없이 9명으로 계속 가면 좋겠구만 ㅠ ㅠ forget-me-not 2013.09.15.

17) 조인희, 손준혁(2011),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슈퍼스타 K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3), pp.34-40 재인용.

탈락자 후보 춤추게 하는 건 잔인하다. …(중략)… 꼭 탈락시켜야 하나? 그냥 팀배틀로 결승까지 거둬도 충분히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거다. 화난다 미아 2013.09.01.

마지막 탈락자 선정도 너무 잔인하네요 오즈 2013.09.01.

나.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댄싱 9〉 시청자들은 대중 심사위원으로서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와 심사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방영 초반에는 남성 심사위원이 여성 참가자에게 심사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참가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쇄도하였다. 또한 일부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실력이나 경력에 비해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심사평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있었다. 한편 사전 가산점 9점 제도의 개선, MVP 선정 방식의 개선, 심사위원 점수 공개 요구 등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8월 31일 방송된 〈댄싱 9〉에서는 블루아이 9명과 레드윙즈 9명의 첫 생방송 대결이 펼쳐졌다. 그런데 지나친 가산점 제도가 재미를 반감시켰다는 혹평을 받았다.”¹⁸⁾ 첫 생방송 대결에서 가산점 9점을 부여받은 레드윙즈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자 시청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긴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없는 예측된 결과의 생방송 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에 〈댄싱 9〉제작진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대결 승리팀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9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심사제도를 재조정하고 다음 방송부터 바로 적용하였다. 의견이 빠르게 수렴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진정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사제도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을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해 낼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되는 심사위원은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서 있는 참가자들

18) 백지은(2013년 9월 1일), ‘댄싱 9’ 첫 생방송, 승패 가른 가산점 제도 ‘긴장감 제로’ 혹평.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01010002250000104&servicedate=20130901>, 2013. 9. 4>.

을 위해 권위적인 자세가 아닌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들의 사설이 너무 많아서 참가자들의 무대가 죽습니다 .. 각각 한마디씩만 해도 네마디.. 춤추는 내내 ... (중략)... 퍼포먼스에 몰입하기가 힘들습니다.. 심사를 하러 온건지 잡담을 하러 온건지.. 꿈을 향하여 질박한 참가자들을 앞에두고 .. 개인취향이니 아니니.. 심사를 하러 온건지 장난하러 온건지 .. 김은아 2013.07.22.

심사위원들보다 참가자들이 더 춤도 잘 추고 수준도 훨씬 높음 곰돌이 2013.07.21.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관건은 심사위원의 수준인데, ... (중략)... 참가자들의 질박함에 걸맞지 않는 수준낮은 심사평.. 알곡 2013.07.21.

사전점수 9점 제도는 없애는게 공정성에서 더 나올것 같네요. 사전 대결을 펼치더라도 상대팀 순서를 알고 그것에 맞춰 정하는 정도의 로얄티는 괜찮지만 점수를 더 부과해서 시작하는것은 공정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13.09.01.

시즌2에서는 우승팀과 별개로 mvp선정했음 좋겠어요. 양팀에서 4명정도를 놓고 가려야 진정한 mvp전이 아닐까.. 그리고 블루에게도 선물줘야함, 노래도 아니고 춤을 추며 너무 고생한 모든이에게 줘야는데 winner takes it all 은 블루에게 너무 잔인하고 팬들에게도 잔인함. 썩어빠진걸까 2013.10.06.

다. 참가자들의 예술적 가능성 저해

〈댄싱 9〉 시청자들은 대부분 참가자들의 춤 실력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으로서 개성과 끼,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더욱 발휘되어야 할 참가자들의 예술적 가능성이 저해되는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다. 무리한 경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혹사당하는 것 같다, 팀 대결로 인해 개인별 기량이 저평가되었다, 믹스매치 유닛 대결로 인해 작품의 질이 낮아졌다 등 참가자들의 부담스러운 여건에 대한 내용들이다. “매주 생방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2가지 미션이 주어진다. 사전 대결¹⁹⁾과 생방송 대결로, 이 두 미션의 점수를 합해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 (중략)... 사전 대결

과 생방송 대결 점수를 합산하며 높은 점수를 얻어 승리를 거머쥔 팀은 그대로 다음 생방송 무대를 준비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아 진 팀의 경우 1명의 멤버를 탈락시켜야 한다.”²⁰⁾ 참가자들은 사전 대결과 생방송 대결(팀 대결, 믹스매치 유닛 대결)²¹⁾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심하며 심리적인 부담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댄싱 9>의 경연 방식은 참가자의 전공 춤 장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춤 장르의 테크닉을 보편적으로 잘 소화해내는 무용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상경력이 화려한 현대무용수일 지라도 스트리트댄스의 기본기를 습득해야 하고, 개별적 테크닉을 선보이는데 익숙한 스트리트댄서도 발레나 댄스스포츠의 기본기를 습득하고 파트너와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들이 촉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수준 높은 공연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시청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같은 장르의 무용수들이 팀을 이루어 대결을 벌이거나, 준비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오늘날 대중의 문화적 수준과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다. 따라서 제작진은 참가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참가자가 저평가 받게 되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방들어오고 확실히 녹화때 보다 무대 질이 낮아 진게 티가 많이남 너무 짹 짹하게 굴리지말고 댄서들한테 여유를 좀 줘야할듯 upto 2013.09.09.

사전미션을 없애던지 생방미션을 한사람당 하나로 줄이던지. 실력좋은사람들 데려다 놓고 일주일에 작품을 몇개씩 뽑아내려고 하다보니 어저 생방 무

19) 사전 대결은 생방송 이전에 진행되는 경쟁을 의미한다.

20) 이혜린(2013년 8월 31일), 첫 생방송 ‘댄싱 9’, 경연 룰 어떻게 진행되나, 『OSEN』, <<http://osen.mt.co.kr/article/G1109673635>, 2013. 9. 7>.

21) “<댄싱 9>의 우승팀을 결정짓는 마지막 대결의 미션이 ‘믹스 매치’로 결정됐다. 그동안 레드윙즈와 블루아이로 나누어져 대결을 펼친 두 팀은 팀 경계 없이 다양한 유닛을 구성해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준학(2013년 9월 25일), ‘댄싱 9’ 최종전, 팀 경계 허문 ‘믹스 매치’로 승부, 『엑스포즈뉴스』,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371690, 2013. 9. 27>.

대는 무슨 댄스부 장기자랑처럼 어수선하고 보기에 낯뜨거웠음 춤자체를 못
 폈다가보다 다들 재량을 못발휘한거같아 아쉬웠음 마법사 2013.09.08.

첫번째 생방송에서 뮤직비디오 판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레드팀이 보기에는
 훨씬 깔끔했는데 왜 블루팀이 된건지..; 개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
 는거 채점 하는 식이라서 좀 아쉬웠어요. 끼도 많은사람들인데 틀에 가두는
 것 같아서~ 곱파츰 2013.09.01.

이프로의 취지가 뭐가요? 개개인들 기량이 들어나지않게 단체로만 평가
 하고.. 이러면 팀배틀뿐..개인 우승자는 없는건가요?... 팀배틀때문에..개인
 들 기량이 과물혀져서 저평가되고들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 안좋아요.. 팀 그
 만하고 개인전 하시죠..그래야지 우승자를 가리죠 slkf112mt 2013.09.22.

다른 장르의 댄서들이 캐미²²⁾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것도 좋지만 자기 분야
 가 아닌 춤을 취야 돼서 아마추어 팀 만도 못한 무대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게 예선보다 본선이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되는데요. 차라
 리 같은 장르의 댄서들을 팀을 이뤄서 대결을 벌이는게 더 수준높은 공연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아닌데아닌데 2013.09.08.

라. 춤 장르 내에서의 불균형

〈댄싱 9〉은 무용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대표성을 내걸고 방영
 을 시작하였다. 종영 후에는 “음악과 더불어 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춤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매회 대중들의 호기심을 불러 모았고 스트리트,
 현대무용, 발레,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춤들이 친근한 방식으로 시청자들
 에게 소개되며 대한민국 춤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²³⁾는 평가를 받았다. 표면적으
 로는 단일 춤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것처럼 연출되었으
 나, 그 실상에는 춤 장르 내에서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
 서 언급했던 〈댄싱 9〉의 순기능에서 다양한 춤 장르의 시청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과 대조되는 분석이다.

22) 캐미스트리(chemistry)의 준말. ‘감정의 화학작용’이란 뜻의 신조어.

23) 조현주(2013년 10월 6일), 종영 ‘댄싱 9’, 대한민국에 ‘춤을 새롭게 정의하다. 『한국일
 보』. 〈<http://news.hankooki.com/lpage/entv/201310/h20131006102559133420.htm>, 2013. 10. 9〉.

한국의 댄스프로에서 한국 전통무용수가 없다는 게...(중략)... 짜증 한국경매민사팀장 2013.09.19.

이번 김해선씨 떨어진 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건으로는 한초임씨보다 김해선씨의 춤을 더 보고싶었는데, 춤의 카테고리가 많이 달라서 그런지 한국무용이 배제된 느낌입니다. 최연주 2013.08.22.

김해선님 아쉽 & 한국무용아쉽.....한국무용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적응 잘 하고 추던데...그나마 이루다와 함께 가장 존재감있는 여성댄서였는데... LIM 2013.08.25.

재밌어요 클래식발레 마스터가 한명있으면 좋았을뻔했네요 이즈 2013.07.23.

다음 시즌에는 클래식까지 잘 아우른 다양한, 진정한 의미의 춤판이 되길 바란다. 배우물향해 2013.10.06.

〈댄싱 9〉 프로그램에서 마스터는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안무와 연출, 심사를 맡아 각 팀을 진두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블루아이 팀의 마스터는 이용우(현대무용), 박지은(댄스스포츠), 더키(스트리트댄스), 소녀시대 유리 & 효연(K-pop댄스)이 맡았고, 레드윙즈 팀의 마스터는 우현영(재즈댄스), 박지우(댄스스포츠), 팝핀제이(팝핀), 이민우(K-pop댄스)가 맡아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K-pop댄스 3명, 댄스스포츠 2명, 재즈댄스 1명, 스트리트댄스 1명, 팝핀 1명 등 8명의 마스터가 대중무용 장르에서 위촉되었으며 예술무용 장르의 경우 현대무용에서 1명만 마스터로 위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무용과 클래식발레 마스터의 부재는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예술무용 내에서도 현대무용에만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방송에서 한국무용 전공 무용수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실력의 부족보다는 한국무용 전공 마스터나 심사위원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시청자들이 석연치 않은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해당 춤 장르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만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진은 중복되는 춤 전공을 배제하고 다양한 춤 장르가 혼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신중하게 마스터와 심사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시청자 집단의 의견 분석을 통해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후 시즌 2를 앞두고 있는 <댄싱 9>의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있어, <댄싱 9> 시즌 1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399명의 시청자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총 381건의 자료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의 순기능으로는 1) 춤에 대한 관심 유발과 몰입, 2) 춤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 탁월한 기량에 감동, 3) 대중 심사위원으로서의 능동적 참여, 4) 무용계 스타의 발굴과 대중의 열광, 5) 다양한 춤 장르 시청, 6) 다시 보고 싶은 춤 등이 도출되었다. 둘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의 역기능으로는 1) 과도한 경쟁심리 조장, 2)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3) 참가자들의 예술적 가능성 저해, 4) 춤 장르 내에서의 불균형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댄싱 9>을 통한 무용의 대중화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주목과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댄싱 9> 프로그램이 무용 대중화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다수의 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자와 연구 제보자 간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소수의 연구 제보자를 선정하여 충분히 라포를 형성한 상태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정수진, 김현숙(2010). 한국의 무용대중화 실천방향: Bourdieu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춤연구』 11: 79-110.
- 조인희, 손준혁(2011).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슈퍼스타 K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3): 34-40.
- 문애령(1992). 무용의 대중화, 『문화예술』 151: 20-23.
- 이지은(2011). 오디션, 그 치명적 중독, 『주간동아』 781: 20-24.
- 한혜리(2001). 삶의 同志로서의 무용, 『문화예술』 258: 63-67.
- 강민정(2013년 7월 29일). ‘댄싱 9’, ‘댄스風’이 분다.. 최고시청률 1.7% 찍었다. 『이데일리』.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249686602879440&DCD=A10102>, 2013. 8. 10>.
- 김주현(2013년 10월 14일). 춤의 대중화 <댄싱 9> 스타의 산실은?. 『베리타스 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80>, 2013. 10. 14>.
- 김풀잎(2013년 10월 23일). ‘댄싱 9’ 갈라쇼, 앵콜 공연 1회 추가...무용계도 ‘놀랐다’. 『TV리포트』.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411930>, 2013. 10. 30>.
- 백지은(2013년 9월 1일). ‘댄싱 9’ 첫 생방송, 승패 가른 가산점 제도 ‘긴장감 제로’ 혹평.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010100002250000104&servicedate=20130901>, 2013. 9. 4>.
- 오미정(2013년 7월 27일). 누가 댄스만 있다고 했나, 스토리 가득 ‘댄싱 9’에 시청자 ‘뭉클’. 『eNews24』.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10807>, 2013. 8. 25>.
- 위근우(2013년 9월 2일). [매거진 ize] 박지우 · 이용우 “<댄싱 9>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한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

- mtview.php?type=1&no=2013090209463659711&outlink=1, 2013. 9. 16).
- 이미나(2013년 10월 25일). 김수로, '댄싱 9' 소문정에게 장학금 준다...“희망 잃지 않길”.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19371, 2013. 10. 26>.
- 이준학(2013년 9월 25일). '댄싱 9' 최종전, 팀 경계 허문 '믹스 매치'로 승부. 『엑스포츠뉴스』.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371690, 2013. 9. 27>.
- 이혜린(2013년 8월 31일). 첫 생방송 '댄싱 9', 경연 룰 어떻게 진행되나. 『OSEN』. <<http://osen.mt.co.kr/article/G1109673635>, 2013. 9. 7>.
- 전수미(2013년 8월 25일). [댄싱 9 동영상] 부상투혼, 끈끈한 우정 빛났다...경쟁님은 감동의 무대. 『eNews24』.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27763>, 2013. 9. 10>.
- 정덕현(2013년 8월 3일). '댄싱 9', '슈스케'와 비교 거부하는 특별한 매력. 『엔터미디어』.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2633, 2013. 9. 1>.
- 정지혜(2013년 10월 15일). '댄싱 9' 열풍... '서울무용제'가 있다.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17>, 2013. 10. 15>.
- 조현주(2013년 10월 6일). 종영 '댄싱 9', 대한민국에 '춤'을 새롭게 정의하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ntv/201310/h20131006102559133420.htm>, 2013. 10. 9>.
- _____(2013년 11월 3일). '댄싱 9' 갈라쇼, 말 없는 무대에 숨죽이고 환호했다. 『한국아이닷컴』. <<http://news.hankooki.com/lpage/entv/201311/h20131103142815133420.htm>, 2013. 11. 5>.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15일
심사일	10월 20일
심사완료일	10월 28일

Abstract

Discuss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the Dance Survival Audition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rization of Dance

- Focusing on <Dancing 9> -

Bae Su-Eul

*Lecturer / Department of Dance
Kyunghee Univ. & Sookmyung Women's Univ.*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the dance survival audition program, <Dancing 9>,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rization of dance by analyzing opinions of the viewer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cademic base data for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Dancing 9> which are facing the release of the 2nd season in the future so it can reflect the evaluation of the first season of <Dancing 9>. For the study method, opinions of 399 viewers were collected and total 381 data were reflected on the analysis.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for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dance survival audition program, <Dancing 9>, 1) provocation of attention and immersion in dance, 2) impression on the passion, challenge and superior skills to dance, 3) active participation as a public judge, 4) discovery of star in the dance world and enthusiastic of the public and 5) watching various genres of dance and 6) dance which the public wants to watch again were derived.

Second, for the negative functions of the dance survival audition program, <Dancing 9>, 1) encouraging excessive competition mentality, 2) lack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method of judgment, 3) impeding artistic possibilities of participants and 4) imbalance within the genre of dance were derived.

keywords: Dance(무용), Popularization(대중화), Survival Audition Program(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Positive Function(순기능), Negative Function(역기능)